

2019 WINTER Vol.5

# 인천 119스토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전뉴스

안전을 위한 재능기부  
소방정책 브랜드 음원  
& 로고송 녹음

## 똑똑똑

그대를 위해  
등반하는 동반자  
119산악구조대!

## 미디어체크

영화 <타워>를 보고  
대원분들께 물어요

# Contents

2019 WINTER Vol.5



나는 연기하는 소방관입니다



진짜 소방서에서 하는 진짜 소방관  
체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피약별 아래 119안전센터  
차고 문 디자인,  
함께했던 뜻깊은 시간에 대한 감상



발행인 인천소방본부장 김영중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발행처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190  
전화 032) 870-3075  
홈페이지 <http://new119.incheon.go.kr/>  
ISSN 2671-5333  
기획편집 김성남, 이경철, 강성은, 변태우  
번역검수 (주)솔트룩스

디자인·기획·편집 (주)착한넷  
070-7092-0999 <https://chakan.net>

#### 04 안전뉴스

“좋은 일이라는 생각에 꼭 참여하고 싶었어요.  
소방관님들, 사랑합니다~”  
“아빠 명예소방관이야~ 저희 아이들에게 자랑하려고요.”  
남동공단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재진압  
남동공단 냉장고 내장재 제조공장 화재진압

#### 10 똑똑똑

그대를 위해 등반하는 동반자, 119산악구조대!

#### 14 미추홀스토리

완도로 출발! 오매불망 기다리던 증손주 안겨드리다  
7가구 20명의 아빠 어디가?

#### 20 미추홀포커스

나는 연기하는 소방관입니다

#### 22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4 에너지충전소

한자리에 모인 삼대! 더할 나위 없는 황영호 소방경 가족

#### 28 생활 속 소방

난방기구 안전수칙 기억하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요!

#### 30 어린이 119

제13회 전국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성료

#### 32 미디어체크

영화 <타워>를 보고 대원분들께 물어요

#### 34 랫츠소방

진짜 소방서에서 하는 진짜 소방관체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 38 시민이야기

피약별 아래 119안전센터 차고 문 디자인, 함께했던 뜻깊은  
시간에 대한 감상

#### 41 칭찬합니다

#### 42 안전카툰

화재 3대 위험 용품, 안전하게 사용해주세요!

#### 43 에필로그



좋은 일이라는 생각에 꼭 참여하고 싶었어요.

## 소방관님들 사랑합니다~

I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event, believing that it was a good thing to do.  
I love you, firefighters.

인터뷰이\_가수 하유비

사진\_김현미

글\_김지현

“우리 집에도 불이 날 수가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요~”

지난 10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인천소방본부 정책홍보송이 탄생했다. 편안한 리듬에 간단명료한 가사로 구성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구수한 트롯풍의 〈불나면 대피 먼저〉, 두 노래는 서로 다른 매력으로 귀에 쏙쏙 박힌다. 한번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은 물론, 낯설게 느껴졌던 소방 정책을 자연스레 숙지하게 돕는 이번 홍보송! 인천 전 소방관서의 통화연결음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두 노래를 특유의 발랄한 음색으로 더욱 멋지게 완성해준 가수 하유비를 만나보았다.



반갑습니다 하유비님.

네 안녕하세요~ 가수 하유비입니다!

요즘 싱글앨범 <평생 내 편>으로 한참 바쁘실 텐데요. 어떻게 인천소방본부 홍보정책송 제작에 참여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를 지켜주시는 소방기관을 위한 일인 동시에 모두의 안전에 보탬이 될 활동이니까 꼭 참여하고 싶었어요. 또 노래를 들어보니 가사도 의미 있고 음도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노래를 불러서 제 아이들을 포함한 어린이들, 어른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방음원 녹음을 해보시니 어떠셨어요?

일반 노래 녹음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웃음) 가사가 재미있어서 웃기도 많이 웃었고요. 평소엔 만나 뵙기 힘든 소방대원님들이랑 함께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녹음하시는 내내 화기애애하시더라고요. 하유비님은 이전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이나 ‘불나면 대피 먼저’ 등의 소방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나요?

사실 잘 몰랐어요.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주택용 소방시설은 저희 집에도 빨리 설치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웃음).

들어보니 진짜 중독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특히 <불나면 대피 먼저>는 음이 정말 재밌어요. 하유비님은 두 가지 노래 중 개인적으로 어떤 노래가 더 마음에 드세요?

아~ 둘 다 좋긴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트로트 가수다 보니까.. 저도 <불나면 대피 먼저>가 어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요.

맞아요. 녹음할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담아 부르셨어요?

음.. 일단은 누구나 따라부르기 쉽게? 그리고 정확한 가사전달을 하는 것에 신경 썼어요. 오늘 음원 녹음에선 ‘내용 전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네. 녹음하시는 걸 보니 노래실력도 실력이지만, 리듬을 정말 잘 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댄스 출신이셔서 이번 미스트롯 나오셨을 때도 춤을 많이 추셨다고요.

네~


혹시 오늘 로고송에 약간의 율동을 넣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곧바로 일어나 춤추며) 원 스탑~

(웃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시네요. 아이들에게도 이 노래를 들려주셨나요?

아직 정식으로 들려주진 못했는데요, 제가 집에서 연습 삼아 계속 부르니까 저희 애들이 따라 하더라고요. 곧잘 흥얼거리는 걸 보니 아이들 귀에도 이 노래가 재밌나 보다 싶었어요. 오늘 집에 가면 정확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인천119스토리 겨울호를 볼 전국의 소방대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오늘 정말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미 있는 활동이었는데다 노래도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즐거웠어요~ 소방대원님들, 사랑합니다~ 

아빠 명예소방관이야~

## 저희 아이들에게 자랑하려고요.

I'm going to talk proudly to my kids that I am an honorary firefighter.

인터뷰이\_방송인 김일중  
사진\_김현미  
글\_김지현

가수 하유비가 정책홍보송을 부르는 동안, 방송인 김일중은 총 10개의 안전 캠페인 내레이션을 설 틈 없이 연달아 녹음했다. 아나운서 출신다운 전달력 좋은 발음과 친근한 목소리로 이렇다 할 NG 없이 잘 마무리된 내레이션 녹음. 이날 제작된 캠페인 음원은 현재 지역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소방관이 꿈인 두 아들에게 자랑하려고 참여했다'는 선한 욕심이 가득했던 녹음 현장, 이제는 아나운서보다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더 친숙한 명예소방관 김일중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안녕하세요~ 김일중님.

네 반갑습니다. 방송인 김일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소방캠페인 내레이션 녹음에 참여 해주신 계기가 두 아들과 관련 있으신가요.

예,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소방관이예요~ 소방관분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때마침 좋은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아들들에게 “아빠 명예소방관이야~” 하고 자랑할 기회더라고요(웃음). 두 아이의 아빠로서, 또 국민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겠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녹음실 오기 전에 아드님께 자랑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은 좀 숨겨두고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아빠 대단하지?” 하고 서프라이즈처럼 깜짝 놀래주려고요.

아드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 초등학생이라 ‘명예소방관’이 무엇인지, 홍보 방송이라든지... 그런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웃음). 대신 소방 관련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녹음한 내용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는 뽑아두기, 장난 전화 하지 않기 등이요.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녹음했으니까 꼭 지켜주겠죠?

확실히 아빠 목소리로 직접 훈계(?)를 듣게 될 테니까 아이들에게 더 효과가 좋겠어요.

네. 불조심해야한다- 장난전화는 하면 안 된다, 같은 것들을 예전엔 교과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관심을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막 강한 교육 아이템(?)이 생긴 셈이죠. “아빠가 인천

소방본부 명예소방관이야~ 명예소방관 이야기 잘 들어야지!” 하고 따끔하게 얘기해줘야죠. 재미있어할 거예요. (웃음)

(웃음) 오늘 녹음하셨던 소방 캠페인 내용 중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으세요?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엔 단순 나열식으로 듣거나 본 내용들이라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진 못한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소소심!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처럼 재미있는 줄임말로 다시 한 번 들으니 한 번에 이해가 되고 오래 기억될 것 같아서 참 좋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내용을 거의 다 외운 것 같아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요(웃음). 오늘의 소감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 자신에게도 소방안전에 대해 각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면 애들한테도 귀에 딱지 앉도록 잔소리하려고요(웃음). 아! 그리고 요즘 ‘도로 위 홍해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소방차들이 지나갈 때 많은 분들이 길 터주기에 흔쾌히 참여하시는 모습을 칭찬하는 말 이래요. 확실히 우리 시민의식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앞으로 소방 캠페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실천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대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우리 소방대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세요. 저희에게 해결 못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다들 제일 먼저 떠올리는 번호가 119거든요? 위험의 최일선에서 저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대원님들이 든든히 계시는 덕에 제가 맘 편히 방송 생활하며 지낼 수 있어요. 오늘처럼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


Putting out a fire at a factory that manufactures plastic, which is located in the Incheon Namdong Industrial Complex

## 남동공단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재진압



2019년 10월 21일 오전 11시 51분경, 남동구 고잔동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최초 목격자인 공장 작업자 A씨는 근무 중 경보음을 듣고 주변을 확인했고 건물 2층 물티슈 제조실인 창고 입구에서 화염을 목격했다. A씨는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농연으로 실패하고 119에 신고했다. 12시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공단소방서는 12시 6분께 대응 단계를 한 단계 높여 사고 발생 지점 인근 2~5개 소방서의 소방력을 총동원했다. 장비 40대와 소방대원 106명이 투입되어 초기 진화에 성공한 인천소방은 화재 발생 1시간 만인 12시 49분경 대응

단계를 다시 1단계로 낮췄고, 오후 1시 53분쯤 화재진압을 완료했다. 신속한 조치로 더 큰불이 되기 전 초기 진화에 성공한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목격자가 창고 입구에서 화염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나 전기를 제외한 상존하는 화원을 특정할 수 없고, 전기 관련 기기에서도 화재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화재 원인은 미상으로 결론났다. 





Putting out a fire at a factory that manufactures interior materials of refrigerator, which is located in the Incheon Namdong Industrial Complex


## 남동공단 냉장고 내장재 제조공장 화재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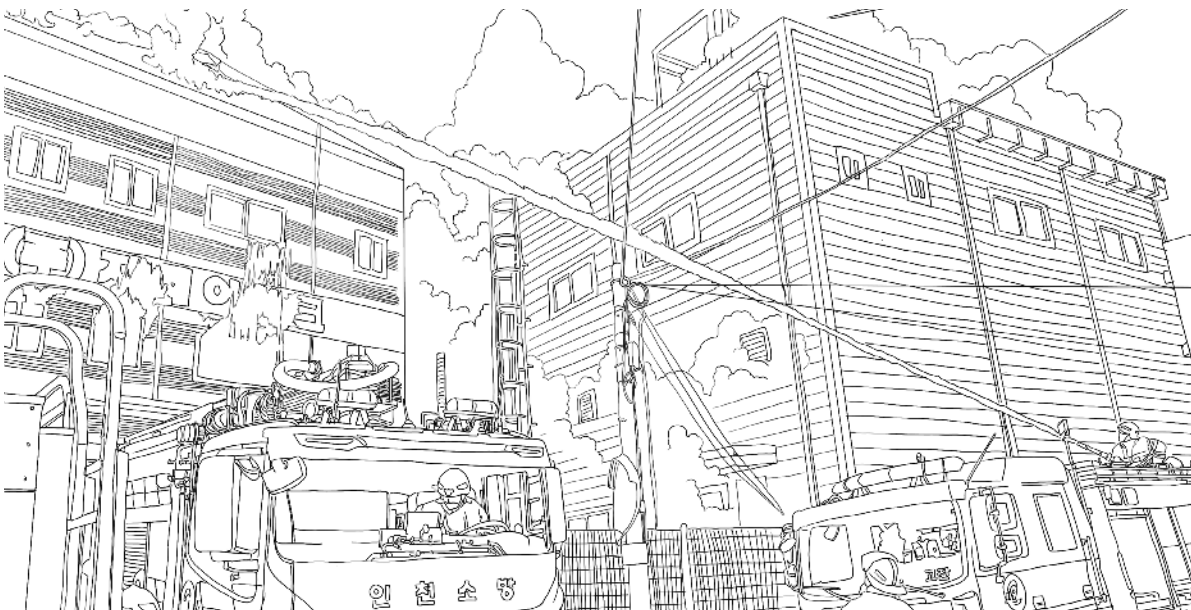


2019년 10월 25일, 불과 4일 전인 21일에 이어 남동공단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또 한 번 화재가 일어났다. 오후 4시 22분경 냉장고 내장재 제조공장에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공장 직원 김 씨가 1층 창고 쪽에서 불이 났다고 외치며 대피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근로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장 내부 1,000m<sup>2</sup> 및 기계설비류 등이 소실된 큰 화재였다.

“창고 내에서 소형 크레인에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샌드위치 패널에서 불꽃이 발생하였다”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 감식에 의한 바,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에 의해 샌드위치패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산 피해 역시 크다. 이번 화재가 일어난 인천 남동공단에서는 한 주에만 3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고, 작년엔 총 5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화재 진화를 완료한 인천 소방본부는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은 특히나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공장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철저히 완비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대를 위해 등반하는 동반자

#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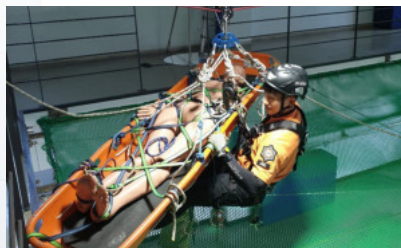
# 산악구조대!

A companion who climbs for you,  
119 Mountain Rescue Team!

“신고자분, 괜찮으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밝은 손전등 빛이 잔뜩 웅크린 남자를 비추고, 곧바로 달려간 대원들은 그를 들것 위로 옮겼다. 야밤에 험준한 산 중턱에서 떨고 있던 부상자는 이제 ‘살았다’ 생각했겠지만, 대원들에게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들것에 달린 손잡이를 나눠 잡은 4명의 장정들은 신속히 몸을 움직였고, 한밤중의 하산은 산 아래의 구급 차량이 보일 때까지 계속된다.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오늘도 등반해서, 겁에 질린 시민과 동반해 내려오는 이들의 이름은 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다.

인터뷰이\_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 소방경 유병선, 소방사 백승근  
사진\_인터뷰\_김현미  
글\_김지현







### 주로 산을 타지만, 다 할 줄 아는 전진소방기지!

사면이 바다와 산으로 이루어져 늘 수난 및 산악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강화군. 인천시 면적의 40%가 넘는 광활한 이곳의 구조임무를 북쪽에 위치한 강화소방서 혼자 전담하던 게 불과 작년이다. 거리가 먼 남부권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시간만 40분가량.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강화소방서 구조대원들이 두 팔 걷고 일어났다.

“남부권역을 지키는 구조기지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발대한 게 저희 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예요. 대원들 스스로 구조대의 필요성을 느껴 발대한 만큼, 산악구조대 직원들은 이곳이 산악구조대인 동시에 주변 일대를 지키는 ‘전진소방기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요. 주로 수난 및 산악 조난 사고로 출동하지만 필요시 전반적인 소방서의 기능을 모두 소화하는 거죠.”

2018년 7월, 마침내 마니산 입구에 119산악구조대가 발대했다. 119산악구조대는 전국에 총 9곳으로, 독립된 청사를 보유한 건 이곳 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가 최초다. 신속함과 전문적인 구조를 요하는 산악과 수난에서의 조난 상황 발생 시 전보다 한 발 더 빨리 나서서, 전보다 한 뼘 더 능숙하게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 그 자체가 자산인, 몸으로 뛰는 대원들!

4륜구동차량에 올라타 구조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대원들은 그곳이 ‘소방헬기가 앉을 수 있는 장소’인지 우선 파악한다. 그렇다고 여겨지면 곧바로 소방항공공대에 협조를 요청하고, 오래지 않아 풀숲을 가르고 다가온 소방헬기에서 구세주 같은 호이스트가 내려온다. 이렇듯, 산악구조대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4륜구동차량도 보유하고 있고 소방항공대와 긴밀한 협력관계도 유지하고 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거나 지리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진다. 차량에서는 얼마 못 가 내려야 하고, 거기서부터 맨몸으로 둔탁한 바위를 넘어야 한다. 헬기요청이 어려운 날은 하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들것에 놓힌 요구구조자의 무게까지 더해 조금 더 숨이 가빠진다.

“출동할 때 요구구조자용 ‘들것’을 몸에 지고 산을 올라요. 일단 마니산 쪽은 암벽구간에서 골절된 부상자들이 많거든요. 부득이하게 헬기요청이 어렵거나, 하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저희가 직접 요구구조자를 업고, 또는 들것에 운반해서 구급차가 대기하는 곳까지 내려와요.”

유독 몸으로 땀 일이 많은 산악구조대. 하루종일 이리저리 발을 굴리다 마침내 발견한 조난자와 함께 산 첫머리에 도착할 쯤이면, 누가 조난자였고 누가 구조대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 흙먼지를 뒤집어쓴 데다 목이 타물 한 통을 단번에 비워버릴 만큼 고생스러웠지만, “덕분에 진짜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에 다음 날도 또 산을 탄다.



## Mini Interview

미니인터뷰이

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  
소방경 유병선 | 소방사 백승근

### Q. 두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병선 : 저는 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병선이라고 합니다.

백승근 : 네, 저는 구조대원 백승근이라고 합니다.

### Q. 강화소방서 119산악구조대는 마니산 입구에 자리하고 있죠. 마니산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은 어디인가요?

유병선 : 마니산에 함허동천이랑 정수사라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가 암벽구간이에요. 경등산화나 등산 스틱을 준비해야 하는 코스인데 밧창이 얇은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발목 골절 등의 사고가 잦습니다.

### Q. 그런 암벽구간 이외는 사고가 잘 안 일어나나요?

유병선 : 아니요, 그 밖에도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얼마 전에도 우리 백승근 소방사님이 조난자분을 구조하셨는데,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가다 하산 지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 많아요. 길을 잃어버리신 거죠. 구조 건수의 절반 정도가 등산로가 아닌 비등산로에서 많이 일어나요.

### Q.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당시 8월) 총 428번 출동하셨어요. 하루 평균 출동 건수가 2건으로, 매일 출동을 나가시는 셈이에요.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유병선 : 네, 마니산이 국민 관광지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거기다 산악동물구조나 생활안전 관련으로도 달려가기 때문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Q. 119산악구조대에서 일하기 위해선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 하시는 것 있으세요?**


백승근 : 119산악구조대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수많은 구조기법과 기술을 숙지하고 있어도 바닥난 체력에선 그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힘들어요. 저희는 비번 날에도 지리조사 겸 마니산에 오르면서 체력단련에 힘을 쏟는 편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쓰일 ‘에너지’를 잘 다져두면 평정심, 침착성 같은 자질들도 뒤따라 오는 것 같아요.

**Q.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백승근 : 제가 구조했던 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할 때요. 그럴 때 힘들었던 것들이 싹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다른 무엇보다 소신껏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이 보장되었다고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그다음에 해야 할 것을 찾아서 소신껏 일하는 것. 저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둬요. 이 일이 힘들다고 해서 어떠한 사유라던가 보람을 느낄만한 것들에 기인해서 업무를 이어가다 보면 막상 그런 보람이 안 느껴질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라 위험한 현장에 가면 두렵고 심장이 쿵쿵대지만, 평소에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팀원분들과 으쌰으쌰하며 극복하

죠. 그 순간들이 전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Q. 끝으로, 팀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백승근 : 하필 다들 뒤에서 근무하고 계셔서 좀 부끄러운데요..(웃음) 저는 여기서 1년 좀 넘게 근무했어요. 다른 구조대원분들에 비하면 아직 새내기예요. 그런데 여기 119산악구조대에서 근무하며 느낀 게, 다들 정말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도 선배들의 정확한 나이를 몰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동네 형같이 다가와 주시거든요. 같이 현장활동을 나가도 밀에 있는 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의 의견은 어떠냐? 네 생각은 어때?” 질문하시고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는 수동적인 후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다 보니 각자의 생각들을 조합해 더 확실한 구조효과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또, 할 때는 확실하게 허리띠 동여매고 열심히 해주는 팀원분들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퇴근해도 내일 다시 다 뵈는 분들이어서요, 더 이상 오글거리는 말은 삼가하겠습니다~ (웃음) 



Let's go to Wando!  
Now she has a great-grandchild that she was waiting for so long.

## 완도로 출발! 오매불망 기다리던 증손주 안겨드리다

글\_송도소방서 미래119안전센터 소방사 추연석

2019년 5월 7일,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화요일. 영흥안전센터(현재 추연석 소방사는 미래119안전센터에 있음) 막내 소방사인 저는 연휴 기간 근무를 마친 뒤 연차를 사용해 얼마 전 태어난 증손주를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조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을 검색하자 441km라고

옆 동네 가는 양 밝은 목소리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음성을 들으며, 출발하기 전 아기 카시트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리곤 곤히 잠이 든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도착할 때까지 이대로... 이대로 꿈나라에서 놀고 있어다오.’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생후 150일 남짓의 제 아들.  
우리 가족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길고 긴 서해안 고속도로로 끝을 건너, 대한민국 땅끝  
마을 해남을 지나 도착한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  
새벽 6시 10분. 하루에 두 번 정해진 시간에 출발  
하는 배편 중 첫 시간의 배표를 뽑아 섬사랑 7호에  
몸을 옮겼습니다.

한 시간 남짓 이동해 마침내 도착한 전남 완도군  
청산면 모동리.

조부모님 댁에 도착해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는데 글썽 완도 도착하기 전까지 그렇게 울던  
우리 아들이 조부모님께는 방긋방긋 미소를 보여  
줍니다. 증손주를 오늘 처음 보았는데도, 어찌나  
밝게 함박웃음을 지으시던지.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조부모님을 바라보며 아내와 저는 눈을 마주하고

“시간 내어 방문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같이 먼 길 와줘서 고마워요.”

눈빛으로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시골에 먼저 도착한 제 아버지께서 직접 잡으신  
소라와 전복을 삶아 요리하고, 먼 길에서 왔다고  
생선과 고기가 가득한 진수성찬을 뱃속에 든든히  
담고 마당에 앉아 조부모님께 오늘의 주인공 아들을  
품에 꼭 안겨드렸습니다. 처음엔 겁이 나신 듯, 한  
번 잠깐 안아보시고 금세 다시 우리에게 건네시려는  
모습에, “괜찮아요. 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  
아하는 것 같아요.” 하고, 더 오래 조부모님 품에  
아들을 안겨드렸습니다.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품 안에서 빵긋빵긋 웃는  
아들을 보자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지셨는지.



아들에게 대화도 걸고, 함께 웃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을 바라보며 “꼬추보자  
꼬추보자.” 하십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옛날 어른들께는 자연스럽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인가 봅니다.

손주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데, 증손주 사랑은  
더한가 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리 아들은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갑니다. 여담으로 노란색 네모난  
종이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32년생이신 우리  
조부모님, 살아생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손주를  
보여드리고 빵긋빵긋 웃는 이 아이가 주는 행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

A program titled 'Where are you going, Daddy?' featuring 20 children and their fathers of 7 families

## 7가구 스무 명의 아빠 어디 가?

글\_미추홀소방서 관교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정엽

고등학생 시절에 만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어울리던 친구 8명이 있다. 어느덧 36살이 된 지금은 각자 삶이 바빠 전만큼 자주 보기 힘들지만, 매달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야 직성이 풀리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이다.

“우리 최소 2년에 1번은 다 같이 해외여행 가보자!”

이번 여행은 만날 때마다 ‘다음 달은 뭐 하고 놀지’ 고민하던 이 철없는 무리가 어느 날 톡 내뱉은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우리는 즉시 와이프들을 설득하고 계획을 추진했다. 20대에는 군대와 취업준비, 30대 초반에는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미뤄왔던 해외여행계획을…. 드디어 모든 친구들의 결혼이 완료되고 먼저 결혼한 선발대의 출산도 마무리된(?) 결혼·출산의 공백기를 노려 2017년 봄부터 2018년 10월에 갈 여행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일단 가겠다고 결심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여행경험이 많은 친구가 주축이 되어 8가구 21명의 대규모 인원과 5살 미만인 6명의 아이들을

고려하여 여행지를 선정했다. 21명의 일정을 파악하여 최적의 날을 골라 비행기와 숙소를 예약하는 등 모든 준비는 물 흐르듯 착착 흘러갔다. 이 과정에서 집안일로 한 명의 친구가 하차하게 되었지만 어렵게 마련한 여행이었기에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됐다. 우리가 고른 여행지는 새롭게 뜨고 있는 베트남의 관광지, 나트랑!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와 동물원이 있고 리조트에서 모든 숙식 해결이 가능한 빈펄랜드를 거점으로 삼고 주변을 구경하는 일정이었다.

10월 3일, 저녁 10시 비행기를 타고 불편한 자세로 아이를 재우며 5시간을 날아갔는데, 베트남 캄란공항에서부터 일이 터졌다. 1시간가량의 연착으로 현지시각 새벽 2시에 오기로 한 버스가 보이지 않고 기사와도 연락이 되질 않았다. 업체에 항의 전화를 걸고 급하게 택시 4대를 수배하여 하프숙소로 잡아놓은 호텔까지 총 1시간 40분이 걸려 도착했다. 베트남을 느낄 순간도 없이 짐을 풀고 옆에서 기절한 듯 자는 아이들과 와이프를 보니 ‘아 이번 여행을 괜히 왔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뒤척이던 나도 새벽 4시쯤 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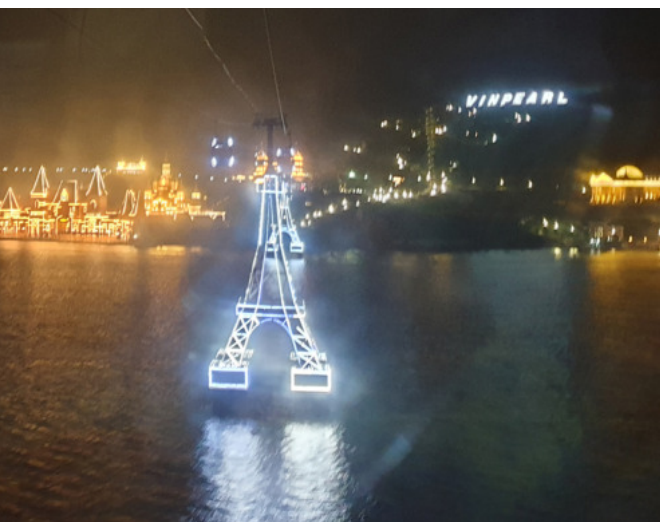
피곤했지만 여행을 왔다는 그 자체로 들떠서였을까? 7시쯤 눈이 떠져서 본격적으로 베트남 여행을 시작했다. 호텔 바로 앞 바닷가로 나온 우리는 수많은 오토바이 옆을 지나 현지인들이 꿈은 맛집을 찾았고, 식당에 앉자마자 젓가락을 들었다. 고수를 씹었는지 독특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는데, 그 제야 ‘아 여기가 베트남 맞구나!’ 하고 피곤이 가시며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후엔 섬 안에 지어진 빈펄랜드로 가기 위해 고속정을 탔다. 빈펄랜드에 도착한 후엔 이곳 전용 미니버스인 ‘벅시’에 올라 이동했다. 예약한 숙소는 4인 가구가 건물 하나를 쓰는, 방 하나하나가 일반 가정집만 한 크기의 매우 훌륭한

리조트였다. 짐을 풀자마자 방마다 달려있는 수영장으로 몸을 던져 이 섬에서의 첫날은 아이들과 밤새도록 원 없이 물놀이를 하고 놀았다.


다음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섬 내부에 있는 놀이동산과 워터파크로 향했다. 잔뜩 신난 아이들과 오랜만에 놀이기구도 타고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드, 패러세일링 등 각종 액티비티와 물놀이를 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멋진 야경을 보며 시내에 있는 핫한 해변 클럽으로 이동했는데, 한껏 꾸민 현지인들이 외국인과 어울려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어른들이 볼 쇼를 관람하고 클럽 음악에 몸을 맡겨 즐겁게 노는 동안 아이들은 꾸벅꾸벅 잠이 들었다. 우리는 곤히 색색이는 아이들을 들쳐 안고 아쉬운 발걸음을 숙소로 돌렸다. ‘다음에 다시 꼭 오리라...’라는 다짐을 남길 만큼 유쾌한 곳이었다.





이번 여행의 취지가 ‘아이들과 와이프가 즐거운 여행’이었던 만큼,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날은 남자들이 모여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고 동물원으로 향했다. 30분 정도면 모두 둘러볼 만큼 작은 규모였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사자·호랑이·기린 등 있을 동물은 다 있었고, 한국의 서울대공원 안의 동물원보다 훨씬 좋았다. 더운 날씨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앞뒤로 안고 엽고 땀을 뻘뻘 흘리며 투어를 해서인지 더욱 기억에 남는다.

동물원 투어와 간단한 물놀이를 끝으로 빈펄랜드를 뒤로하고 첫날 묵은 호텔로 이동했다. 우리는 방에 짐을 풀어두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이동했다. 어른 14명이 마사지로 피로를 푸는 동안 아이들 6명은 키즈카페에서 네일아트를 하며 비교적 얌전히 잘 놀아줬다. 중간에 엄마 아빠를 찾아 마사지 현장을 찾아온 것만 빼면….

마지막 날엔 베트남의 야시장을 구경하고 비행기 시간에 맞춰 밤 11시, 공항에 도착했다. 5시간 비행 동안 다시 불편한 자세로 아이를 재우며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했다. 여행을 마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쉽다… 하루만 더…’였다. 첫날에 ‘굳이 무리해서 여행을 왜 왔을까?’ 하던 짜증은 어디로 가고 정말 즐겁게 지내다 돌아왔고, 이젠 여행이 모두 끝났다는 아쉬운 마음에 다음날 출근길이 더욱 힘들었다. 물론 이번 여행을 통해 장거리 여행은 아이들이 좀 더 크고 가면 좋겠다 싶긴 배워기도 했다만, 또 여행 언제 가느냐는 첫째 딸을 보면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친구 놈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의 매력에 빠져 2년에 1회 꼭 가자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새겼고, 벌써 다음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느낀해진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 같다. 



우리가 또 어디서 어떤 여행을  
하고 있을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





I am a Firefighter Actor

# 나는 연기하는 소방관입니다

클\_중부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사 류일호



안녕하십니까, 소방정대에 근무하는 소방사 류일호입니다. 저는 조금 별난 삶의 과정과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항해 관련학과 졸업 후 3년간 항해사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항해 중인 배는 육상과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은 사회입니다. 철판 하나를 사이에 둔 발밑에는 수천 미터의 심해가 존재하기에 심적으로 미미한 긴장이 유지되고 파도에 흔들리거나 폭풍우에 잠 못 들고 시달리는 나날이 계속됩니다. 지루하면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고된 환경이었지만 그때 보았던 잊지 못할 광경들은 기억에 남아 가끔 생각나곤 합니다.

대양에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조금 과장해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은 달빛이 밤바다에 차갑게 내립니다. 달이 뜨지 않는 밤에는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지고 장막을 두른듯한 어둠과 구멍으로 새어 나온 빛 같은 별들만이 사방에 남아 마치 텅 빈 우주공간을 항해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철새 무리가 석양 아래 앉아 쉬고 있는 해역을 지나던 어느 날, 우연히 수천수만 마리의 새들이 흩어지는 구름처럼 배 주위를 날아오르는 장면을 낚고 보기도 했고, 째깍한 햇살 아래 한 조각 먹구름이 번개를 품은 채 비행선처럼 날아가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 관광지가 아닌 낯선 항구에 내려 외국의 문화를 접해보는 것까지 모두 항해를 하지 않으면 접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폐쇄적인 환경에서 수년을 근무하다 보니 육상, 특히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습니다. 그때의 갈망이 지금 제가 이런저런 취미







를 가지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항해사를 그만둔 어느 날, 어떤 잡지에서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춤을 춰라.’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가장 가까운 살사 동호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뻗뻗하던 몸이 서서히 리듬을 타게 되고 서툴던 동작이 어느 날 가능해지는 성취는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살사를 비롯한 스윙, 탱고 등의 소셜댄스를 동호회에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좋은 취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춤이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삶의 행복도를 높여주는 멋진 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축구는 여러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해양스포츠는 비교적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만 춤은 음악과 몸만 있으면 어디서든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 강한 몰입감과 고양감이 생겨나고 많은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파트너와 호흡을 맞출 때는 두 사람이 마치 한몸처럼 움직이며 마술 같은 동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경지에서 자유자재로 추시는 분들을 볼 때면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저는 좀더 진지하게 임하는 취미로, 직장인 극단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기획하고 무대 위로 올리는 과정은, 비유하자면 연

출·스텝·배우들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목적지까지 오리걸음을 해서 간다는 느낌입니다. 하나의 공연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선 백번 이상의 연습이 필요하고 그 와중에 한 명이 멈추거나 요령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작업이기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손에 손을 더해 무대를 꾸려가는 과정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맨손에 대본 한 권을 시작으로 디자이너가 무대를 구상해 그려오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 직접 무대를 만듭니다. 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배역을 맡은 캐릭터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면 피자집을 창업한 형이 응원차 야식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용달 일을 하시는 분이 기재를 옮겨다 주고 미용 교육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 휘하의 교육생들과 함께 분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지만 필요할 때 함께 모여 별자리를 만드는 별들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던 여러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고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나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미지의 분야에 도전하는 일은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취미를 찾고자 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thanking me!

## 감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_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소방교 정현종

*‘부쩍 다가온 여름, 한 남자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  
다. 구조가 조금만 늦어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  
이때 당신은 그 남자를 살릴 능력이 있는가?’*

나는 구조대원으로서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 부산소방학교에서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교육에 지원했다. 처음 배울 수상구조 교육에 부푼 기대를 안고 인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길. 갑자기 KTX 열차 안 스피커에서 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열차 안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승객분은 지금 즉시 9호 차 화장실 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방송을 듣자마자 급히 9호 차 화장실 칸으로 달려갔다. 현재는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구급대원으로 신규 임용했었고 구급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다.

9호실 화장실 칸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환자는 화장실 변기 위에 걸쳐 앉아있었다. 그는 의식은 있었으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다. 나는 인파 속을 헤집고 들어갔다.

“소방대원입니다. 여기 체온계와 혈압계 좀 갖다 주세요.”

우선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옆에 있던 승무원에게 요청했지만 ‘열차 안에는 체온계나 혈압측정기 같은 측정 장비는 없고 자동심장충격기만 구비되어 있다’는 말이 돌아왔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이용하는 KTX에 체온계나 혈당계 같은 기본 응급장비조차 없다는 사실에 놀랐으나 지체할 겨를이 없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마침 KTX 엔진의 온도를 재는 공업용 온도계가 있었다. 그것을 이용, 환자의 체온을 체크했다. 약 40도가 넘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쇼크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빠른 이송이 필요했고, 나는 당장 119에 전화했다. 열차 안에서의 상황과 환자의 상태, 환자가 내릴 플랫폼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동시에 구급대에 인계하기 전까지 환자의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미온수 마사지를 했다.



20~30여 분 지났을까. 열차는 서대전역에 도착했다. 열차 문이 열리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열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진행한 응급처치와 환자 상태를 전달했고 이송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나는 이제 119구급대의 보호로 넘어간 그가 무사하길 바라며 계속 부산으로 향했다.

그렇게 나흘이 흘렀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상구조사 훈련을 매일 수료하며 허덕이느라 열차에서 일어났던 일을 새카맣게 잊고 있을 즈음이었다.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다. KTX 열차의 환자분께서 보낸 문자였다. ‘맹장염 진단을 받았고 덕분에 빠르게 수술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였다. 잠시 후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였다. 환자분은 “덕분에 완쾌되었다”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훈련으로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이번에는 따님에게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전화가 왔다. 다시 이틀 뒤 이번에는 아드님에게 전화가 왔다. 마찬가지로 ‘감사’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인사를 많이 받으니 기분이 좋았다. ‘소방대원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이수상구조사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겠다는 결심이 솟아 올랐다. 그 후 나는 다음날도, 그 다음 날도 내가 필요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다짐하며 다시 훈련장으로 들어섰다. 



## 한자리에 모인 삼대!

# 더할 나위 없는 황영호 소방경 가족

Three generations in one place! The perfect family of Hwang Young-ho firemen

사진\_김현미 글\_김지현

인터뷰이\_서부소방서 정서진119수난구조대 소방경 황영호, 아내 유부현 님, 계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안전보건팀 소방교 황규리, 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이화성

황영호 소방경의 60회 생일잔치가 열렸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케이크 위에 초를 꽂고 과일을 깎았다. 대장인 황영호 소방경 밑으로 딸 황규리 소방교와 사위 이화성 소방교까지 가족 중 세 사람이 3교대를 하는 소방관이 라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건 꽤 오랜만이다. 아버지 생신을 좀 더 특별히 꾸며드리고픈 마음에 '에너지충전소'에 신청한 예쁜 딸, 소리 높여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는 고마운 아내, 듬직한 아들과 사위, 거기다 이제 곧 태어날 손주까지 삼대가 뭉친 날.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다.



### 나의 동행, 이제는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요

“두 분, 시선 마주해주세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씩씩하게 미소 짓는 황영호 소방경 부부. 꼬옥 잡은 아내의 손이 지금도 마냥 곱고, 남편의 손은 여전히 든든하다. 바쁜 업무에 미처 돌보지 못한 집안일을 꼼꼼히 도맡아준 아내에게 고맙고, 긴 세월 소방관으로서 묵묵히 일하며 힘든 내색않던 남편이 존경스럽다.

**황영호** 제가 젊어서는 교대 근무를 하느라고, 또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인 동시에 여러 가지 회장직을 맡아버려서 집안일에 소홀했어요. 아내 혼자 짐을 진 것들이 생각나서 미안하고 고마워요. 이제는 업무가 끝나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앞으로는 여행도 가고 아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요. (웃음)

**아내 유부현** 남편이 퇴직하면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웃음) 아직까진 직장이 좀 더 우선인 것 같긴 하지만 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니 저도 참 고맙고 좋아요. 사실 가족 중 셋이 소방관으로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명절에도 꼭 한 명씩은 빠지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고 기뻐요~

### 비밀연애에서 소방부부가 되기까지

아버지 황영호 부부의 촬영이 끝난 뒤엔 딸 황규리 소방교가 남편 이화성 소방교와 함께 포토라인에 올라섰다. 이들은 소방학교 동기였다. 이후에 같은 소방서의 같은 센터로 발령났고, 거기서





또 같은 팀으로 묶였다. “신기하죠?” 두 사람은 신기할 만큼 거듭됐던 인연을 되새기며 눈을 반짝였다. 1년 반가량 ‘비밀연애’를 했었다는데, 척박도 너무나 다정한 두 사람. 분명 동료들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황규리** 같은 소방서에 같은 센터, 같은 팀으로 발령이 나서 소방관으로서의 첫 시작을 남편과 함께한 셈이에요. 비밀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만 모른다고 생각했지, 사실 주위 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걸지도 모르겠어요(웃음).

지금은 제가 임신 8개월째인데,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내 몸 힘들답시고 남편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신경도 못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늘 참아줘서 감사해요.

**이화성** 비밀연애 중에 야간근무를 하고 아침에 같이 퇴근한 적이 있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서 둘이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우연히 동기를 마주친 거예요. 소문날까 봐 저희끼리 조마조마했었죠(웃음).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아이의 아빠, 엄마가 되었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애기 태어나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아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성에 딱! 다른 직업은 생각해보는 적도 없어요**

소방관이 아닌 다른 직업을 고려해본 적 있냐 묻

자, 황영호 소방경과 황규리 이화성 소방교 모두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소방관이 아닌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단다. “적성에 맞기 때문”이라는 아빠 황영호 소방경의 말에 딸 황규리 소방교는 남편 이화성 소방교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하는 거죠. 저희 전부 일에서 보람을 느껴요.” 직업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 세 사람은 함께 소방관이어서 좋은 점으로 ‘소통’을 꼽았다. 같은 일을 하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다.

**황영호** 딸이 어렸을 때 소방관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특히 보람을 느꼈던 일들이요. 산 사람을 구조했을 땐 말할 필요도 없이 기뻛고, 비록 이미 숨을 거뒀더라도 애타게 기다리던 부모와 가족들에게 시신이라도 온전히 넘겨드릴 땐 소방관이라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이 직업은 그런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분명 필요해요. 그래서 딸, 사위에게도 “어차피 소방관이 됐으면, 힘든 부분들은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고 말해요. 좀 더 일찍 들어와서 좀 더 길게 일한 선배로서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열어주고 잘 따라주는 딸, 사위에게 고맙죠.

**이화성** 올해 강원도 고성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지원출동을 갔었어요. 가는 곳마다 불이 옮겨붙어 있어서 밤새 물 나르고 불 끄는 걸 반복했어요. 그러다 지친 채로 식당에 갔는데 주민 분들이 감사하다





고,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또 중간에 교대하고 차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한 행인이 다가오셔서 과자를 주시면서 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 느꼈던 것처럼, 저도 그날 이 직업을 택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황규리** 지금 제가 하는 업무는 소방공무원들의 보건 안전과 관련한 일이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출동하는 직원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최대한 안전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껴요. 일이 좋고, 또 저한테 맞다는 확신이 들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과정에서 가끔 막히거나 어려움을 느낄 땐 아빠나 남편에게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묻죠. 그러면 두 사람은 또 객관적으로 조언을 잘 해주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도움돼요.

#### 2020년, 어떤 새해 소망을 갖고 계세요?

실제 펜션에 모인 건 9월에 가까운 늦여름으로, 당시엔 아직 ‘새해’와 거리가 멀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을 텐데도, 마치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다정한 답변을 내놓은 고마운 가족들. 이들의 인터뷰가 실린 인천119스토리 겨울호가 나올 즈음엔 2019년의 마지막 꼭짓점일 테니, 보기만 해도 다복한 황영호 소방경 가족에게 이 소식지가 기분 좋은 새해 선물이 되길 바란다.

**이화성** 저는 다이어트요. 현장직에 있다가 행정직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살이 갑자기.. 15kg 감량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급하고 싶습니다(웃음).

**황규리** 저는 내년엔 출산하고 나면 휴직 들어가게 되거든요. 언제 복직할지 아직 정확히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2020년엔 우선 아기 낳고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어머님** 우리 딸도 처음 되는 엄마고 나도 처음 되는 할머니니까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네요~ 내년엔 한 식구 더 늘어서 다들 건강하게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웃음).

**황영호** 집사람 있고, 딸 있고, 아들 있고, 사위 있고, 손주 있고. 더 바랄 게 없는데(웃음).

제가 곧 정년이에요. 소방 일에도 잘못된 부분, 좋은 부분 모두 존재합니다.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좋은 부분들을 더 많이 채워두고 떠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제 모든 노하우를 알려 주고 조금 더 좋아진 소방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요. 또.. 내년엔 우리 딸 출산 잘하고, 다들 건강하자~! 🍀



# 난방 기구 안전수칙 기억하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요!

Having a warm winter by keeping in mind of safety regulations  
of heating equipments!

인포그래픽\_강우리 통계 참고자료 출처\_인천소방본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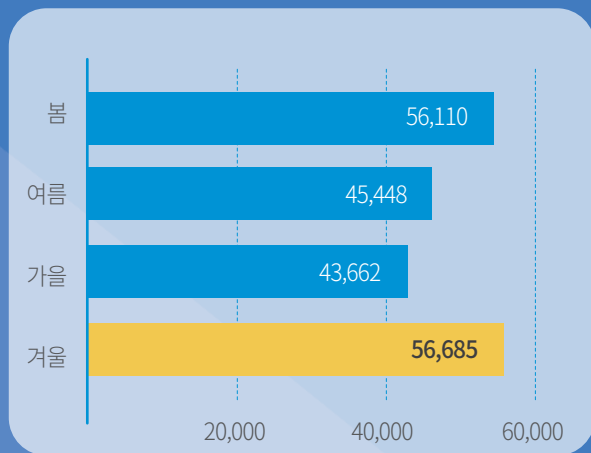
얼음장같이 추운 겨울이라도 집 안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는 집순이·집돌이들. 방 안에 뽕뽕하게 튼 보일러, 차가워진 손을 사르르 녹여주는 전기난로, 이불 속 따끈한 장판만 있다면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웬걸, 이 고마운 녀석들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인천119스토리 이번 호에선 겨울철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난방 기구를 더 효율적으로,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수칙을 소개한다.

.....

## 지난 5년간 계절별 화재발생 현황

참고자료 출처\_인천소방본부,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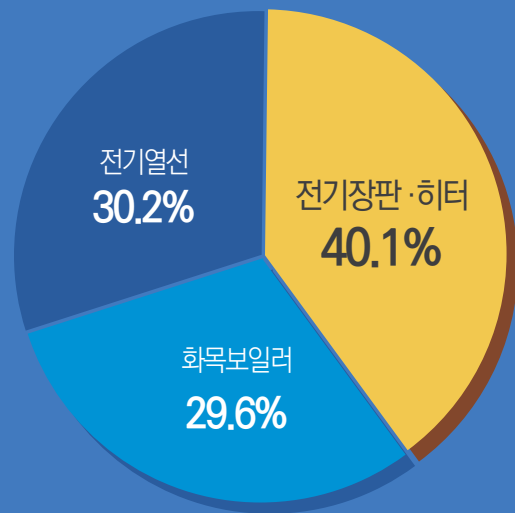
겨울철에는 화기사용 및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여 여름과 가을에 비해 화재 발생건수가 높음



.....

## 최근 5년간 난방용품 화재발생 현황

2014년~2018년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 중 전기장판·전기히터가 1,6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열선 1,207건, 화목보일러 1,184건 순



.....

##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첫째** 가급적 난방용품을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멀티콘센트는 허용 전력의 80% 이내로만 사용한다.

**다섯째**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고장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일곱째** 무거운 물건에 전선이 눌리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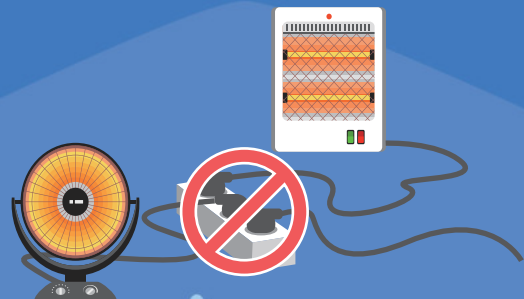
**둘째**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거나 콘센트를 빼둔다.

**넷째** 가연성 물질(옷장·이불·소파 등) 가까이에서는 NO NO!

**여섯째** KS(한국공업표준규격)또는 공인된 인증제품을 구입한다

**여덟째** 가슴기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멀티콘센트는 콘센트에 전기기구가 연결될 때마다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 제13회 전국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성료

*Successfully finishing a contest for the 13th Nationwide  
119 Safety News for Youths*

지난 11월 21일,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한 소방청과 한국소방원 주최 ‘전국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가 대전광진역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활 속의 안전 아이디어나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요소들을 발굴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경진대회다.

이번 ‘제13회 전국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에는 전국 각 지의 초·중·고등학교 18개 팀을 비롯해 심사위원인 소방청 차장, 한국소방안전원장 및 지도 교사, 학부모 등 약 3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본 대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된

팀이 공연 당일 영상 내용을 뉴스 형태로 구성하여 뉴스 기자 또는 아나운서가 되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출전 팀들은 각자의 개성을 드러낸 발표로 심사위원의 시선을 끌었다. 인천 강화 초등학교는 전체 4위로 입상하였으며 대피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을 실제적인 상황극으로 연출하여 습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으로 동상인 EBS 교육방송 사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3 인천 강화초등학교 학생들 연습 사진

4 제 13회 전국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에 참가한 인천 강화초등학교 학생들

"준비과정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정말 기특하고 고마워요."

- 강화초 지도교사 김재일





## <타워>를 보고 대원분들께 물어요

After watching the movie “Tower”, we asked  
some questions to the firefighters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하늘에선 인공 눈이 내리고, 번쩍이는 트리가 장식된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타워스카이’ 안은 행복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연말 특유의 들뜬 모습으로 웅성거리던 이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바규환의 전쟁터로 변한다. 타오르는 바닥과 무너져내리는 천장. 모두가 건물 밖으로 허겁지겁 벗어날 때, 오히려 시뵐겅게 타오르는 그곳으로 향하는 소방대장 영기(설경구)와 대원들. <타워>를 보며 생긴 궁금증을 영화 속 설경구만큼이나 멋진 현직 소방대원들에게 직접 물었다.

글\_김지현

사진\_CJ ENM

\*바쁘신 와중에 기꺼이 답변 주신 소방대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도소방서 신송119안전센터 소방장 최원석 님, 신기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승학 님, 주안119안전센터 소방교 조영리 님, 구조대 소방사 하솔샘 님, 용현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대근 님

### 소방헬기를 공무원이 아닌 용도로 사용 가능 할까?

초고층 빌딩 ‘타워스카이’가 마침내 오픈했다. 오만한 타워스카이의 회장은 오픈식을 그 어떤 행사보다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은 욕심에 소방헬기를 띄워 하늘에서 인공 눈을 내리게 한다. 붉은 소방헬기 여러 대가 허공을 날아다니며 인공 눈을 흩뿌리고, 빌딩 안 사람들은 마냥 황홀해 한다



공무원인 소방헬기를 이렇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혹은 영화적 설정인지 소방대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소방헬기 외에도 소방차량 등 화재 시 출동장비들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다행히도 영화적 설정이랍니다.



### 소방관의 감?

음침한 건물 상층부에 진입한 소방대원들. 소방대장 영기는 고요한 복도의 벽 한편에 손을 가져다 댄다. 그리고 벽면을 가볍게 쓸어보고는, “근처에 있어, 뛰어!”하고 소리친다. 대원들은 신속히 물러섰고, 곧바로 벽면이 폭발하며 불길의 솟구쳐 나온다



영기처럼 화재가 일어난 고층 건물 내부에 진입해 벽면만 만져보고 ‘곧 터질 것 같다, 불길이 터져 나온다’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나? 있다면 어떤 ‘느낌’이나 ‘반응’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나?

백드래프트 현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여 훈소상태인 실내에 다량의 산소가 갑자기 공급될 때 연소가스가 순간적으로 발화하는 현상으로, 문손잡이가 매우 뜨겁거나 내부연기가 연한 회색 또는 노란색으로 변하는 경우,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연기가 다시 문틈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 등을 통해 백드래프트 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발화 지점과 맞불작전

뜨거운 화염으로 불게 물든 ‘발화 지점’. 용감한 대원들은 굼직한 물대포를 분사해보지만, 이미 거세게 번져버린 화염은 오히려 더 불게 솟아난다. 영기의 수족인 병만(김인권)은 “여긴 절대 안 됩니다 대장님! 지금 철수해야 합니다!” 하고 고개를 저었지만, 완강한 영기. “여기가 발화점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해.” 그는 붉은 도끼로 근처 창문을 모조리 깨뜨렸고, 깨진 창문 밖으로 유도된 불길의 빠르게 빠져나간다. “맞불작전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병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원들을 멀찍이 대피시킨 영기는 결심한 듯 발화점을 향해 폭발물 하나를 힘껏 던진다. 곧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솟았고, 서서히 잦아들더니 마침내 불길이 잡히기 시작한다.




영기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발화 지점’의 불길을 잡으려 고군분투한다. 대형 화재 시 ‘발화 지점’의 불길을 잡는 건 화재 진압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또 발화 지점의 불길을 잡았을 경우와 잡지 못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발화 지점의 불길을 잡는 건 화재 진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 발화 지점을 발견하여 불길을 잡았을 경우,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기에 발화 지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시야 확보도 점차 어려워지고 연소가 확대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맞불작전’이란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 실제로 화재 진압 시 맞불 작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

‘맞불’은 불이 난 앞쪽에 의도적으로 놓은 불로, 맞불 작전이란 즉 불길이 진행될 방향의 연소 물질들을 미리 제거해 불을 잡는 방식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산불의 경우 이 작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Real firefighting experience held in an existing fire station.  
I'll support your future.

## 진짜 소방서에서 하는 진짜 소방관체험,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글\_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소연

‘직업체험’이라 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는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단연 소방관! 언제나 소방관 체험공간 앞은 들뜬 아이들로 가득하고 가장 긴 대기시간을 자랑합니다. 아마 미니 소방차를 타고 출동해 실제처럼 꾸며진 세트장에서 용감하게 불을 끄고 돌아오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인천중부소방서에서 테마파크의 체험 프로그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생생한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지요^^ 저는 ‘진짜’를 경험하러 이곳을 찾은 동산고등학교 친구들이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체험을 할지 그 자리에 동행해 보았습니다.



## 가장 빨리 소방관이 되는 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이날 현장에는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한 동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27명이 모였습니다. “소방관을 직업으로 삼고 싶거나, 이 일을 궁금해하는 아이들이예요. 소방관이 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 진짜 리얼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라고 신신당부하신 인솔 선생님 말씀과는 달리, “정말로 소방관이 되고 싶은 친구, 손 들어 볼까?”라는 질문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의 기도’라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소방서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자 누구보다 집중하는 아이들. 그렇게 동산고 1학년 친구들과의 미래소방관 직업체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안전센터? 화재? 구조? 구급? 도통 뭐가 뭔지 어려워요

소방관은 공무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일반직·특정직·정무직 중 국가의 안전과 방위·사회질서 또는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 속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양한 업무 분야로 채용을 하고 있단 걸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은 불을 끄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 정도를 소방업무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소방조직구성 안내,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과 같은 현장활동 및 소방시설 조사·교육·훈련 등 예방행정을 위한 업무 설명을 통해 소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갓(?) 들어온 이재홍 소방관님을 만나다

두 번째 시간에는 새내기 소방관, 이재홍 대원을 만나 본격적인 직업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신 채용시험 정보와 생생한 합격 후기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적합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소방관련학과 특별채용을 응시했던 이재홍 대원 본인의 경험담, 또 특전사 군 복무를 마치고 혹은 응급구조학과를 졸업 후 시험에 응시했던 주변 동기들 이야기에 학생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질의·응답 차례에는 너도나도 손을 들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CPR)

끝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을 배워보았어요. 심정지 환자는 4분이 지나면 심각한 뇌 손상, 10분 이상이 지나면 뇌사 혹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실시하는 가슴압박을 직접 실습해보았는데, 30번씩 5세트 반복에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해내며 열일곱의 강인한 체력과 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 동산고등학교 학생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설명을 듣고 꿈이 더욱 확고해진 것 같아요. 빨간색 소방차의 웅장한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나중에 꼭 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제 SNS 한 줄 소개인 ‘First in, last out’이라는 문구를 실제 소방서 계단에서 보니 새로운 기분도 들었고요.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소방 관련 학교를 졸업하고 특수부대에 지원해서 특별채용에 응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소방관님을 존경합니다. 파이팅!”

-1학년 3반 임유란-

“소방관은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은 물론 소방서 안에서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대원분들은 도움 받은 이가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정말 뿌듯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느껴져 저도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전국의 소방관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어쩌면 제 꿈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에 더 의미있었습니다.”


-1학년 1반 김현빈-

“소방서와 소방관들이 하는 일, 월급, 소방관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 배웠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월급’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큰 액수라고 생각했지만, 체험을 마치고 나 올 무렵에는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구하는 분들의 보수라기엔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발사고 현장에서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이야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출근 전 방 청소를 해둔다는 대원, 사물함에 가족사진과 유서를 놓아둔다는 이야기를 기사로 볼 때마다 안타깝게 느껴 집니다. 그런 기사의 댓글을 보면 ‘소방관 대우를 이렇게 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3순위 장래희망이 소방관인데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솔직히 조금 머뭇거리지기도 합니다.”

-1학년 7반 박지성-

“소방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체력측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신 영상 속 소방관들이 온 힘을 다해 남녀 구분 없이 훈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역시 소방관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느꼈습니다.”

-1학년 5반 구하경-

오전을 다 보내고서야 프로그램이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체험을 마친 친구들이 작성한 빠곡한 후기에서도 보이듯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이번 미래소방관체험교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함께 도와주신 중부소방서 박상욱 팀장님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

“자유롭게 꿈꾸고, 또 그 꿈이 앞으로 얼마든지 변해도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특권입니다. 주변의 기대에 못 이겨 이상적인 것만을 쫓아 진로를 정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고, 내 적성과 재능을 찾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는 꿈길에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산고, 화이팅입니다~!”

”

##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이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 및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각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관 체험교실

### 1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입체적인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소방관련 자격증(소방기술가, 소방시설관리사, 응급구조사 등)과 취업분야 소개
- 소방관련 진학 및 학과 소개(소방안전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 제복공무원으로서 소방관의 명예, 헌신과 봉사정신 소개로 나라사랑 정신을 이해하고 함양하는 계기 마련

### 2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현장중심의 자기 주도적 직업체험

- 현장활동에 대한 이해
- 소방장비 및 소방차량 소개, 소방시설의 이해 및 작동실습

**장소** 각 소방서, 소방학교 또는  
체험신청학교 등

**대상** 중 · 고등학생

Designing a door to a garage of 119 safety centers that was done under the blazing sun, and reflecting on the meaningful time of getting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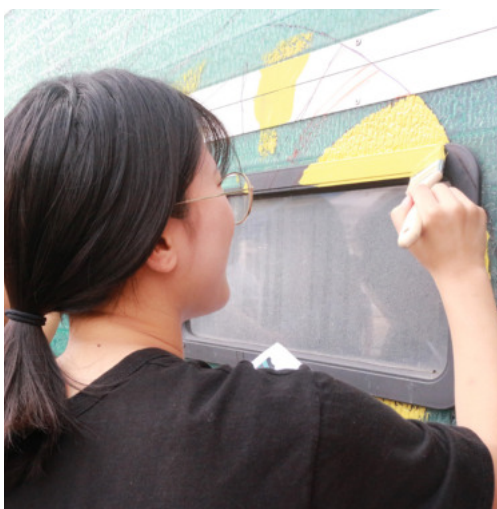
## 띄약별 아래 119안전센터 차고 문 디자인, 함께했던 뜻깊은 시간에 대한 감상

글\_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문희

지난 7월 중순, 무더위가 한창이던 주말 동안 강화고·강화여고 미술부원 30명과 지도교사 2명, 그리고 강화소방서 대원들이 함께하여 강화119안전센터 차고 문이 새롭게 재탄생했다. 강화 남문 이미지와 소방캐릭터를 활용한 이번 디자인은 비록 화려한 솜씨는 아니었지만 벽화 그리기에 참여했던 학생, 교사, 소방대원들의 열정만으로도 뜻깊다. 함께한 3일간의 작업, 각자의 짧은 소감을 기록한다.







#### 안지혜(강화고 미술교사)

지역사회에 본인이 가진 재능을 기부한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 교육적인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힘을 합해 119안전센터 차고 벽을 아름다운 벽화로 그려낸 이번 활동은 단순한 미적 활동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도하는 입장인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벽면인지 몰랐습니다. 사다리를 타야 할 정도로 높은 곳에서 채색하는 것이 위험하진 않을까 우려되었지만 소방대원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 안심하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주시면서도 주도적으로 채색에 동참하는 모습에 아이들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일반 벽면과 달리 접히는 부분이 있는 차고 문이라 채색이 까다로웠지만 학생들은 그만큼 더 열심히 집중했고, 완성도를 높일수록 작품에 대한 만족도도 커졌습니다. 생각 없이 지나치던 공간을 공공미술로 새로이 탄생시키자 오가던 시민들이 벽화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고, 참여한 학생들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전보다 한 단계 성장해, 지역사회에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또 없는지 찾기도 합니다. 함께 땀 흘리며 벽화 작업에 매진해 주신 소방서 대원분들과 강화여자고등학교 담당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전재홍(강화고 3학년)

소방서 벽화 봉사는 완전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이전까지 다른 벽화 봉사활동은 비교적 체계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소방서 벽화는 공공기관에 설치된다는 생각에서 오는 진지함 덕분이었는지 친구들의 태도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담당 소방관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설명해주셔서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몰입할 수 있었어요. 이번 계기로 나도 우리 사회를 위해 한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는 뿌듯함은 너무나 가치롭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방서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대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강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우리 학교 후배들과도 더욱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 최준혁(강화고 2학년)

벽화 그리기를 마친 후 몇몇 소방관분들께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생명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들께 칭찬을 들어 더욱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밤 낮없이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런 도움이라도 드리게 된 것이 정말 뿌듯했구요. 소방서 옆을 지나던 시민들이 벽화를 보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잠시나마 떠올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이기현(강화고 2학년)

다른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서에 저의 손길이 닿은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두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첫 활동이라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기(강화고 2학년)

해가 찢찢한 피약별 아래서 스케치부터 색칠을 완료하기까지 친구들과 서로를 응원하며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몸은 힘들었지만 소방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잠시나마 그분들의 업무를 엿볼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제 미술적 역량이 확장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 유승준(강화고 2학년)

솔직히 처음에는 칠해야 하는 벽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대원분들과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덩거나 힘들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나중엔 오히려 즐거웠어요. 미술부 친구들, 후배들과 함께하니 더욱 재밌었고요. 다음에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 정동준(강화고 1학년)


고등학교에 입학해 처음으로 실내가 아닌 바깥에, 큰 규모의 벽화를 그렸어요.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방서 벽면에 내가 그린 그림이 자리한다 생각하니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강화여고 미술부와 함께하는 것이 설레면서도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막상 활동을 시작해보니 선생님과 소방관님들도 도와주시고 서로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분위기에

서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지역사회 일부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후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 곽태영(강화고 1학년)

뿌듯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페인트와 붓을 다루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선배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점차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 쉽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얻어 정말 기뻐요, 잘 마무리한 스스로가 대견스러웠어요.

### 박문희(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처음 미술부 학생들과 함께 차고 문 벽화 그리기를 추진하면서 많은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이 작업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디자인한 만큼 결과물이 잘 나올까? 작업하는 날 비가 오면 어찌지?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 디자인을 확정하고 준비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불안은 점점 깊어지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술부 지도교사 두 분과 미술부원 학생들의 열정 덕분에 제 불안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작업에 임했고 최선을 다해주신 강화고, 강화여고 미술부원들과 열과 성을 다해 함께 해준 강화소방서 직원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Let's Compliment 칭찬합시다

### 1 “서부소방서 검단119안전센터 김복원, 김성욱, 심주에 119소방대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박윤희  
소방관 : 검단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복원,  
소방교 김성욱, 소방사 심주에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019년 9월 19일,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서 아내 화장실 쪽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다행히 쓰러지기 전 남편에게 ‘숨이 안 쉬어진다고’ 전화했고, 남편은 119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해주신 119 대원님들 덕분에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 둘이 있다’는 제 말에 한 분은 확인 후 동네 분에게 아이들을 부탁해 주셨고 다른 분들은 저의 상태를 살피시고 이동 침대로 옮겨주셨습니다. 김복원, 김성욱, 심주에 대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남편, 아이들과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을 만들어 주신 것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 2 “인천계양소방서 민원팀 이우용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작성자 : 김영주  
소방관 :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우용

얼마 전, 황당한 소방 사고가 있어 급한 마음에 무작정 계양소방서 민원실에 방문했습니다. 민원실 이우용 반장님께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소방상식을 잘 설명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도와주시려 애쓰시는 모습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방관은 불을 끄는 일이 소임이지만 국민의 마음의 불까지 꺼주시는 따뜻한 배려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양소방서 이우용 반장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 3 “인천중부소방서 만석119안전센터 구급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김다희  
소방관 : 만석119안전센터 구급대원  
분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4일 새벽 4~5시경 동부아파트에서 신고한 내용으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심한 장염에 걸려 움직일 수도 없다시며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소방직인 저는 당시 야간 근무 중이라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할머니께서는 급하게 119에 신고하셔서 다행히 큰 탈 없이 무사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남자 구급대원 두 분이 오셔서 들것이 흔들릴 수 있다며 꼭 잡으라 말씀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다”라며 아주 고마워하셨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 성함을 묻지 못하셨다고 안타까워하셔서 이곳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도 같은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새벽에 나가는 출동에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도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 화재 3대 위험 용품, 안전하게 사용해주세요!

Fire hazard 3 items, when used safely, prevent accidents.



추운 겨울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잘 못 사용하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화재위험 3대 용품’**

반드시 기억! 하세요.

안전하게 **사**용할 때, 안전**사**고가 **예** 방됩니다.



## 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굵혀도 보상금이 0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중 34%는 ‘도로정체 및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협소’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 후 소방활동 방해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해졌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불법주정차 문제!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소방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시행’을 알리기 위해 굵혀도 보상금이 0원인 특별한 ‘생명복권’을 만들었어요. 지난 8월, 불법주정차 차량들에게 생명복권을 배부하고 인근 상인분들께 캠페인을 설명드리는 등 ‘생명복권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누군가에게겐 더없이 소중한 골든타임! 올바른 주차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 인천소방본부 공식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19incheon>



미추홀119스토리의 모든 내용은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와 전자책 유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웹진                      인천소방본부홈페이지 <http://new119.incheon.go.kr>
- 전자책(ebook)        리디북스, 교보문고, 알라딘, 구글 플레이북스, yes24, 반디앤루니스

## 불

작은 불씨엔 희망이 있고  
온온한 불빛은 서정이 있다.

모닥불 한 아름엔 낭만이 있고  
다스려진 불씨는 예술이다.

놓쳐버린 불씨는 재앙이며  
거져 버린 불씨는 두려움이다.

목숨을 노리는 불길 앞에서  
겁 없이 덤비는 너는 누구냐.

사명에 몸 바친 노방관이다.  
혼신을 태우는 맞불이다.

글\_구은희

